

# 러, 모스크바 미국계 학교 교사 30명 비자 발급 거부

러시아 당국이 모스크바의 미국계 학교 교사 수십 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해 학교 운영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학교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서방 국가 외교관과 기업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관과 교민 자녀, 부유층 러시아인 자녀들도 다니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스크바 소재 미국계 유치원·초·중·고등 과정 통합학교인 '앙글로-아메리칸 스쿨' (Anglo-American School of Moscow) 교장은 최근 학부모들에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 외무부가 (주러) 미국 대사관에 (앙글로-아메리칸 스쿨) 교사들을 위한 비자를 예년처럼 발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가을학기를 위해 (교사들에게) 필요한 모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입학생 수를 줄이고 강의 할당을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6일 자 기사에서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 영국, 캐나다 3개국 대사관이 운영하는 앙글로-아메리칸 스쿨 교사 30명에게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지난 1949년 미국, 영국, 캐나다 3개



국 공관이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는 이 학교에는 60여 개국 출신 학생 1천200여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영어권 출신이 핵심인 교사 150명이 재직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이번 러시아 당국의 조치를 외교관 자녀들의 학습을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는 미국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러시아의 대선개입 해킹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뉴욕과 메릴랜드에 있는 러시아 외교시설 2곳을 폐쇄한 바 있다.

# NATO 보고서 "미 핵무기 150개 유럽에 보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의원연합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밀사항인 유럽 내 미국 핵무기 위치 현황이 공개됐다. 삭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 나토 의원연합 국방안보위원회 소속 조지프 데이 상원의원이 지난 4월 쓴 '핵역지의 새시대, 현대화와 군축, 연합 핵 전력' 보고서 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벨기에 신문 드 모르겐을 인용해 보도했다.

드 모르겐은 보고서의 사본을 근거로 "약 150개의 미국 핵무기들이 유럽에 보관돼 있다"며 핵무기가 보관돼 있다는 기지 총 6곳을 공개했다. 벨기에의 클라인 브로켈, 독일 뷔켈, 이탈리아의 아비아노와 게다-포레, 네덜란드 볼켈, 터키 인지르리크 등이 지목된 지역들이다.

보고서에 정보의 출처는 나와 있지 않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논란이 되자 최근 온라인에 공개된 보고서 최종판에는 구체적인 핵무기 보관 지역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핵무기를 운송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2018년 미국 비정부기구 핵위협 이니셔티브의 보고서를 인용한다는 각주와 함께 "나토 회원국은 가끔씩 벨기에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가 그런 항공기를 운용한다"고 적어 놨다.

WP는 미국의 핵무기가 벨기에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에 보관돼 있다는 건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전했다. 데이 의원은 "보고서에 활용된 모든 정보는 공개된 출처"라고 설명했다.

의명을 요구한 나토 관계자는 WP에 "우리는 나토의 핵 태세에 대한 세부사항을 언급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나토의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 북한 북부에 난데없는 '골드러시'

북한 북부지역 일부 하천에서 대량 발견된 사금 탓에 당국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뒤엉켜 난데없는 '골드러시'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시아경제'가 '아시아프레스'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사금이 대량 발견된 곳은 북부 양강도의 한 하천이다. 하류인 함경남도 단천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다. 공사하기 위해 상류지역 물을 일시적으로 우회시켜 빼내자 강바닥 모래에 섞여 있는 금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 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국가기관 역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강도의 노동당 기관, 보안국(경찰), 검찰소가 인력을 동원해 사금 채취에 나섰다.

여기에 인근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강변은 혼잡하기

이를 데 없다. 양강도의 소식통은 "양강도 운흥군에서 발원해 해산 신장리에서 허천강으로 흘러드는 운흥강 강바닥 모래를 1t 파면 금 2g이 나온다"며 "장사가 시원치 않아 돈 없는 주민이나 인근 농민들이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 대거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흥부자인 '돈주' 들도 난데없이 나타난 사금에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돈주들은 당국으로부터 사금 채취 작업을 청부 받았다. 돈주에게 임시 고용된 이들은 강바닥을 깊게 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당국이 사금을 독점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강변 출입부터 막고 밤에는 경비까지 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은 경비원에게 뇌물까지 건네가며 강변으로 들어가 모래를 훔쳐 가고 있다"고 전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